

【막대한 피해를 초래한 2016년 쿠마모토 지진】

안녕하세요. 오카야마 시장 오모리입니다.

지난 4월 14일과 16일에 발생한 쿠마모토 현 구마모토 지방을 진원으로 하는 대지진은 쿠마모토 현 마시키 마을에서 사상 처음으로 동일 지점에서 진도 7의 지진이 2 회나 관측 된 것을 시작으로 쿠마모토 오이타 현 일대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진이 계속되어 불편한 피난 생활을 강요받고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구마모토는 제가 과장이었을 때 약 3년을 보냈던 기억에 남는 장소이며, 피해 지역의 상황을 전하는 매일 매일의 뉴스와 당시의 친구에게서 「나는 무사하지만 ... 동북지역 여러분의 수고를 뼈저리게 알았습니다. 모두가 힘을 합쳐 노력하겠습니다. 」라는 메일에는 재해 피해자분들의 일상생활을 잃은 것에 대한 노고가 엿보여 가슴이 막히는 듯했습니다. 다시 한 번 이번 지진에 의해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기원함과 함께 재해 피해자분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 드립니다.

지진 발생 직후 한 달이 다가오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긴급 소방 원조대와 재해 의료 파견팀 (DMAT), 경찰, 자위대 등의 관계 기관을 비롯해 전국에서 모인 자치단체 직원이나 자원봉사자 등 관계자들이 하나가 되어 구호, 구조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시에서도 지진이 발생소식을 듣고, 같은 정령 지정도시인 구마모토시에 현재까지 총 약 530명의 직원을 파견했습니다만,

지금까지의 활동을 통해 느낀 것은 발생 전 전국 20개의 정령 지정 도시 간에 합의된 행동 계획이 잘 기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는 피해를 당한 구마모토시와는 다른 총무를 맡아보는 시 (이번에는 히로시마시)가 각시의 지원 할당 등을 담당함으로써 원활한 대응이 가능해 더욱 효과적인 재해지 지원에 연결되었기 때문에 발생이 예측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이러한 사전 준비가 중요하다는 것을 재차 실감했습니다.

또한, 얼마 전 제가 국제 우호 교류 도시인 중국 낙양시와 한국 부천시를 방문했을 때 현지로부터 위로의 말씀과 기부금을 받아 많은 사람들이 피해 지역에서 멀어지는 것을 걱정하고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오카야마 시민 여러분과 기업, 단체로부터도 많은 기부금을 받는 등 국가와 지역을 넘어 많은 사람이 피해 지역에 대해 마음을 하나로 하는 느낌에 정말 기쁘게 생각함과 동시에 오카야마시도 재해지에 한시라도 빠른 복귀를 바라며, 앞으로도 최대한의 지원을 해 나가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카야마시에서는 이번 지진을 교훈으로 지금 이상으로 방재 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싶다고 생각합니다만, 여러분도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재해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평소에 가구 등의 전도, 낙하를 방지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를 들어, 취침 시 가구가 몸에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은 자신과 가족의 생명을 지키는 데 매우 중요한 것이며, 지금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일상생활을 돌이켜 최소한의 준비라도 해야겠다고 생각합니다.